

# 환경문제만큼은 勞社가 없다

■ 편집부



▲좌로부터 권영국·박군석 기술관 박상숙·김이열 환경관리인

이달의 현장은 경영주의 투철한 환경인식이 돋보이는 곳, 소비자들에겐 제도사프로 잘 알려져있는 주시회사 마이크로코리아를 찾았다. 지난 '66년 신흥정밀공업사로 시작, '86년에 (주)마이크로 법인으로 승격한 본사는 지난해 500만불 수출산

업포상,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명실상부한 종합문구메이커다.

기자가 방문한 그 시각, 상무이사실에선 손한수상무이사를 비롯, 생산5과 권영국기술관, 생산5계 박군석기술관 그리고 수질담당 박상숙, 대기담당 김이열환경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중이었다.

〈표 1〉 대기관리 DATA

구분	측정항목	배출허용기준	측정치
부서	SO <sub>x</sub>	800ppm	35.9
	HC l	25ppm	7.8
	Cl <sub>2</sub>	10ppm	3
	Dust	300mg/Sm <sup>3</sup>	41
	CH <sub>3</sub> COC <sub>2</sub> H <sub>5</sub>	10ppm	불검출
생산 5계	NO <sub>x</sub>	300ppm	30
	SO <sub>x</sub>	800ppm	49.7
	Zn	10ppm	0.51
	F	10ppm	0.01
	SO <sub>x</sub>	800ppm	37.0
	Cr	1mg / Sm <sup>3</sup>	0.01
	CN	10ppm	불검출
	NH <sub>3</sub>	250ppm	불검출
	Cu	20mg / Sm <sup>3</sup>	Tr
	HC l	25ppm	0.4
생산 3계	Cl <sub>2</sub>	10ppm	0.15
	Dust	300mg / Sm <sup>3</sup>	41.4

애기들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까. 그들 틈에 앉아 애기들을 모아왔다.

지난해 대기분야에 2억을 들여 정화 시설을 갖추고 법적허용치보다 30% 낮게 기준을 잡아 관리해왔으나 그래도 불만족스러워 Scubber를 하나 더 설치하려는 것이란다.

“기업의 환경관리는 경영주가 얼마만큼 환경에 관심있느냐

**흔히** 환경보전의 첩병이라고 일컬어지고있는 우리 환경관리인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하면서 벽에 부딪치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기업주의 환경의식 부족이다. 기업주의 높은 환경인식은 곧바로 회사의 환경관리실태와 직결된다. 이에따라 관리인들의 진가가 빛나기도하고 퇴색하기도 해 온게 사실이다.

〈표 2〉 수질관리 DATA

(단위 mg / l)

오염물질	구분	처리수수질				처리후 수질	배출허용기준
		AA폐수	CN계폐수	Cr계폐수	폐가스세척시설 폐수		
PH		2-13	12-13	3.8-4.5	7.5-8.0	8.0	5.0-8.6
COD		140	160	180	150	34.0	100이하
SS		120	250	300	184	26.4	100 "
N-H		20	5	3	8.25	1.8	5 "
Cu		50	80	2	33.75	1.8	3 "
CN		-	120	-	120	0.3	1 "
Cr <sup>+3</sup>		-	-	200	200	0.5	2 "
Cr <sup>+6</sup>		-	-	120	120	0.12	0.5 "
Zn		60	80	25	42.5	2.2	5 "
Ni		150	-	20	60	6.0	-
Fe		50	-	20	20	2.8	10이하

가 관건입니다. 이 분야가 투자 비용은 크지만, 회수비용이 적기 때문이죠.”

매일 환경관리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는 손상무는 본사의 경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월 천여만원이 투자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환경관리는 결재가 간결, 신속해야하므로 보고 단계를 최소화시켜 상무이사가 전결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일처리가 매끄럽다고. 화학공학을 전공했고 설비분야에 능통한 손상무는 환경문제는 직급에 상관없이 허심탄회하게 토의, 처리한다고 말한다.

오랜동안 본사의 환경관리를 맡기도 했다는 권기술관은 생산 우선이라는 회사의 인식으로 관리인들의 기술교류를 위한 견학 등의 결재가 보류되었던 종전과는 달리 현재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견문을 넓히기 위한 일엔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있다고 한 예를 든다.

옆에 있던 박기술관도 환경처리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투자액과 상관없이 얼마나 깨끗하게 처리하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일일 70~80M<sub>3</sub>의 시안, 크롬계통의 도금폐수를 화학적처리하고 있는 본사의 경우 폐수가 혼합되면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 현장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우리 환경관리인들은 현장에서 삽니다. 저희의 올해 목표는 녹색업체로 지정받는 겁니다. 그 회사의 약품쓰는것, 시험결과, 동파방지시설을 설치했느냐를 체크해보면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해 처리하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의 계획을 밝히는 손상무는 관리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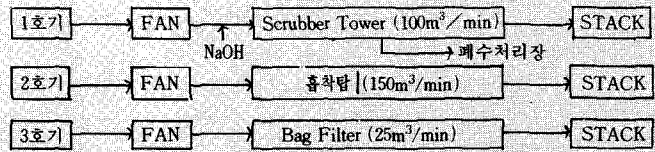
본사의 경우는 예외지만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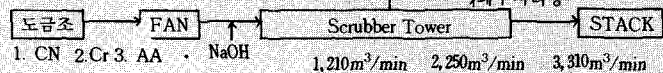
▲환경문제만큼은 직급에 상관없이 허심탄회하게 토의

● 대기방지 시설 공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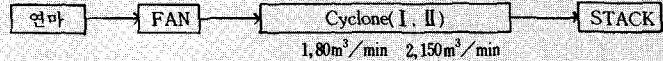
1. 생산5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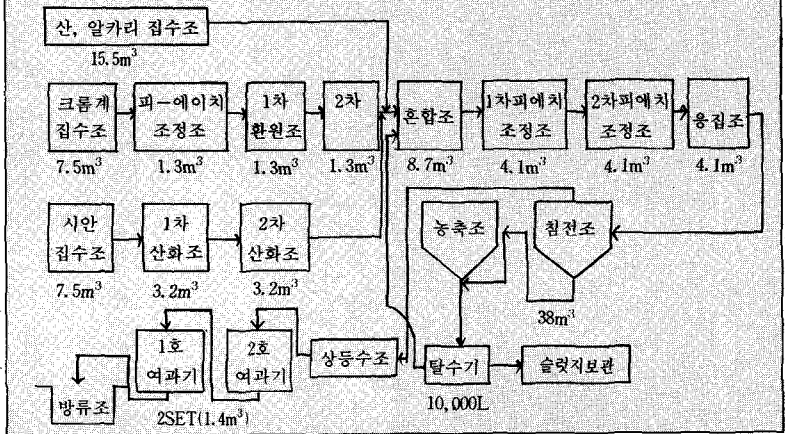
2. 생산5계



3. 생산3계



● 폐수배출 시설 공정도



의 단속과 시설투자 및 유지에 소원한 기업 사이에서 업무수행하느라고 고충이 크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지도단속에 앞선 기술계몽이 없는 점, 행정서류미비시 선도 보단 명령조치가 앞서는 점, 긴급문제... 모두 이구동성이다.

“한마디로 말해 환경관리인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사

회분위기가 조성돼야 합니다. 방금 여러분이 지적한 모든 사항은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데서 기인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환경인육성을 위한 기업의 과감한 투자도 있어야 하고 관리인역시 투철한 의식을 갖고 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을 수행해야겠죠. 서로의 책임이 큼니다.”